

발행인 칼럼



가금현 발행인

울산광역시·여수시·서산시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공단이 위치한 자치단체다.

이 세 곳은 환경오염원 배출과 화학사고, 정유 유출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 대형사고의 주범으로 여론의 도마 위 단골 메뉴였다.

하지만 최근 도마 위 단골 메뉴에 울산과 여수는 보이지 않고, 서산만 올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석유화학공단이라면 이 세 곳이 똑같아야 할 텐데 왜 두 곳은 조용하고 한 곳만 요란하게 도마 위에 올라난다니 당하고 있는가.

이에 지난 27일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공단 주변을 꼼꼼하게 둘러봤다.

대산을 둑꽃리 대산산단부터 대죽산단까지 둘러보면서 공장이 살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무수한 굴

뚝에서 피어나는 불꽃연기와 수증기, 공장이 가동되면서 울려 퍼지는 우렁찬 굉음, 머리가 어찔어찔해지는 이상아릇한 냄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통해 서산 석유화학공단이 힘차게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8일 본 취재진은 환경전문가와 함께 울산 석유화학공단을 방문하게 됐다.

반기운 것은 서산에서 본 기업의 간판이 이곳에서도 눈에 보인다는 것이다. 이곳은 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만이 자리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기업들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서산시는 이들 기업 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만 뽑아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문제는 공단에 진입했을 때다. 공장 가동이 모두 멈춰버린 듯한 느낌에 환경전문가에게 물었다.

“오늘 이곳의 공장 모두 셧다운(가동중단 후 수리) 중인가요?”라고. 이에 전문가는 정상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끌어 보이지 않게 위치한 공장들

마다 세워진 무수한 굴뚝에는 시골 초가집에서 밤지를 때 솔잎태워 나오는 연기만큼도 안 되고, 공장 가동되며 내는 소리는 시골 방앗간 쌀 짹는 소리보다 더 적고, 냄새는 서산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산책할 때 맙는 것보다 못하니 공장 가동이 중단 된 줄 알았던 것이다.

같은 기업이 울산에 있는 공장 굴뚝에서는 불꽃은 고사하고 연기조차 안 나오는데 왜 서산에 있는 공장 굴뚝에서는 불꽃 쇠에 메케한 연기 를 내뿜을까.

두 곳을 방문하면서 이 같은 의문이 남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 전문가에게 다시 물었다.

왜 울산 석유화학공단은 굴뚝의 매연과 악취가 없냐고.

답은 생각외로 간단했다.

울산은 굴뚝을 통해 나오는 매연과 악취를 모두 포집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서산은 왜 안 되는가?라는 답변에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다.

뒤집어 말하면 울산의 공장은 시설투자를 통해 환경오염원을 줄여 에너지를 만들고 있지만, 서산시에

위치한 석유화학단지의 기업들은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관계 당국인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서산시의 미온적인 행정력이 문제다.

울산이 되면 서산도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혹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공직자도 있지만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다.

국가산단에서는 법을 지켜야 하고, 지방산단에서는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인가.

법이 없으면 사례를 따르면 된다. 지금이라도 양승조 도지사와 맹정호 서산시장은 관계 공무원을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파견, 서산 공단과 울산 공단을 비교분석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서산이 울산보다 7년 늦는다고 하는 소리가 현장에 달이 있었다.

충남도나 서산시가 달이 있는 현장을 보지 않고, 눈감으면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CTN 논단

가갑손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나라.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역사학자. 소설가. 극작가였던 고 신봉승 선생의 국가란 무엇인가? 서문의 제목이다.

우리 곁에는 국가는 없고 정당. 기업만 있고 학교에도 국가는 없고 입시만 있다. 국가는 정당 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고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

나라.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정당 지도자, 대학교수들과 같은 사회 지도층들이 국가론을 입에 담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그런 것이 전연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 현대사가 어둠의 질곡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참담한 것은 국가에 대한 지식인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다.

국민의 먹고살고. 죽고사는 최고의 정치는 안보, 경제다. 여의도 국회는 여야 전쟁터가 된지 오래 망했다는 사실은 눈리가 아니라 결과였음을 우리 역사는 소상히 적어 놓고 있다. 망했을 때의 역사를 되풀이 하는 것은 지식인들이 할 것은 아니다. 틀림없이 망하기 때문이다. 대

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치인, 기업인 또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고 자유시장경제가 무너지고 법치가 아닌 인치로 변해가고 있다.

국민의 먹고살고. 죽고사는 최고의 정치는 안보, 경제다. 여의도 국회는 여야 전쟁터가 된지 오래 망했다는 사실은 눈리가 아니라 결과였음을 우리 역사는 소상히 적어 놓고 있다. 망했을 때의 역사를 되풀이 하는 것은 지식인들이 할 것은 아니다. 틀림없이 망하기 때문이다. 대

는다. 전직 대통령들이 타살, 자살로 죽고 각종 죄목으로 수감 되기도 하고 69세인 분과 80세인 분은 수감되었다. 세계사에 없는 대통령 수난 역사이다. 정치 관련 사건은 정치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 대통령도 마음 놓는다. 언제부터 착한 우리 국민이 이렇게 악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남북 분단도 서러운데 북한의 핵 위협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국민이 되었다. 지역 노사 계층갈등으로 무엇하나 할 수 없다. 협치 협력, 용서를 잊은지 오래다. 이를 해결할지도 모르는 것이 최대위기임을 알아야 한다. (신봉승 선생의 글을 일부 인용)

[만물창고]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

한성진
CTN 교육신문 편집국장

고사성어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은 엎지른 물은 다시는 물동이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으로 한번 저지른 일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내용이다. 원래는 한 번 헤어진 부부는 다시 돌아킬 수 없고, 한 번 헤어진 벗은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중국 주(周)나라를 세운 ‘무왕’(武王)의 아버지, ‘문왕’(文王)의 시호를 가진 ‘서백’이 어느 날 황하강 지류인 위수로 사냥 나갔다가 피곤에 지쳐 강기를 거닐던 중 낚시를 하고 있는 초라한 행색의 한 노인을 만났다. 수인사를 나누고 잠시 세상사 이야기를 하다가 서백은 깜짝 놀라고 만다. 초라한 늙은 시골 노인이 외모와 달리 식견과 정연한 논리가 범상치 않았다. 단순히 세상을 오래 삶은이가 가질 수 있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깊은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논리였다. 잠깐의 스침

으로 끝낼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한 서백은 노인 앞에 공손하게 엎드려 물었다.

“어르신의 힘자는 무슨 자를 쓰십니까?” “성은 강(姜)이고 이름은 여상(呂尚)이라 하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 제가 스승으로 모셔야 할 분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너무 과한 말씀이오. 이런 존구석에 사는 능부가 될 알겠소.”

‘강여상’은 거듭 사양을 했으나 서백의 근질긴 설득으로 끝내 그의 집으로 따라갔다. 그때 강여상은 기니 조차 잊기 힘든 곤궁한 상태였고, 아내 ‘마씨’는 이를 못하고 집을 나간 상태였다.

강여상은 서백의 집으로 따라가 그의 아들 ‘발’의 스승이 돼 글을 가르쳤다. 그 발이 바로 주나라를 장건 한 무왕이고 강여상은 주나라의 ‘재상’(宰相)이 되어 탁월한 시견과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했다.

강여상이 어느 날 가미를 타고 행차를 하는데 웬 거지 노파가 앞을 가로막았다. 바로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아내 마씨였다. 남편 여상이 주나라 재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천리 길을 걸어서 찾아온 것이다. 마씨는 땅에 엎드려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

강여상은 하인을 시켜 물 한 통이 떠 오게 한 후 마씨 앞에 물동이

를 뒤집어 엎었다. 물은 다 쏟아지고 빙동이는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런 후 마씨에게 “이 동이에 쏟아진 물을 도로 담으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당신을 용서하고 집에 데려가겠소”

마씨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아니! 한번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도로 담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강여상은 그 말을 듣고, “맞소! 한번 쏟은 물은 주위 담수를 수없고 한 번 집과 남편을 두고 떠난 아내는 다시 돌아올 수 없소.”

마씨는 호화로운 마차에 올라 멀리로 떠나가는 남편 강씨를 명하니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노인 ‘강여상’이 바로 낙시로 세 월을 낚았다는 ‘강태공’이다.

이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의 이야기는 긴 세월 동안 전승돼 오늘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조선 숙종 때 작자 미상의 고전 소설인 ‘옥단춘전’(玉丹春傳)에 한 마을에 ‘김진희’(金真喜)와 ‘이혈룡’(李血龍)이라는 같은 또래의 아 이 두 명이 있었다.

둘은 동문수학하며 형제같이 우의(友誼)가 두터워 장차 어른이 되어 서로 돋고 살기로 언약했다. 커서 김진희는 과거에 급제해 평안감사가 됐으나, 이혈룡은 과거를 보지 못하고 노모와 처자를 데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던 중 평양감사가 된 친구

진희를 찾아갔지만 진희가 만나주지 않았다. 하루는 연광정(鎌光亭)에서 평양감사가 잔치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찾아갔으나 진희는 초라한 몰골의 혈룡을 박대하면서, 사공을 시켜 대동강으로 데려가 물에 빠뜨려 그를 죽이라고 한다.

이때, ‘옥단춘’이라는 기생이 혈룡이의 비변함을 알아보고 사공을 매수, 혈룡을 구해 그녀 집으로 데려가 가연(佳緣)을 맺는다. 그리고 옥단춘은 이혈룡의 식솔들까지 보살펴 준다. 그 후 혈룡은 옥단춘의 도움을 받아 과거에 급제, 암행어사가 돼 걸인행색으로 평양으로 간다. 연광정에서 친지하던 진희가 혈룡이가 다시 찾아온 것을 보고는 재차 잡아죽이고 하자, 어사출도를 해 진희의 죄를 엄하게 다스린다. 그 뒤 혈룡은 우의정에까지 오른다.

어린 날의 맹세를 생각하며 찾아온 이혈룡을 멸시, 죽이려 한 김진희는 걸으로는 우의(友誼)를 내세우며 자신의 체면과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우정을 헌신처럼 버리는 양반층의 숨겨져 있는 추악하고 잔인한 이중적 인본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강태공과의 천생연분을 함부로 끊은 아내 마씨와 이혈룡과의 친구간 우애를 칼로 무자르듯 절라버린 김진희는 말로가 매우 비참해졌다. 이 것은 상식이다. 글이 좋아 보내온 특을 참조했다.

사설

여교사 회장실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한 교장 ‘현 교육계 현실’

최근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한심하기 짜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계의 사건 사고에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계인지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

지난달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혁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혀 교육계는 물론 전국이 놀라 뒤집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장은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회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들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A 교장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육계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도교총)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장을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기도교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학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인 사건이 그것도 학교장에 의해 이뤄졌다는데 충격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또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범법을 했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교직 윤리를 스스로 어긴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되어야 묵묵히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는 절대다수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는 교원과 함께 교직 윤리 실천을 통한 성 비위 없는 깨끗한 교직 사회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충주시교육지원청, ‘꿈기움 마켓’ 개소

충주시 무학시장 내(内) 청소년 창업공간 마련

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특성화 학생들의 특별 전시행사와 오석초등학교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 특별 참여해 작품들을 전시하며 솜씨를 발휘했다.

개소식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김성근 부교육감, 충주시 문화체육관광 국장, 충주시 순경수, 박해수, 이희수 의원, 충주교육지원청 김용환 교육장, 5개 교 학교장, 이상록 무학시장 상인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이 만든 물건을 시장 상점에 전시·판매해보는 경험을 통해 예비 청년 사업가로서 두려움보다는 열정이 기득한 청년으로의 성장을 돋우고, 미래 지역의 든든한 소상공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충주시 특성화고등학교 ▲충주공고 생활가구, 소품 주문제작, 태양광 자발전 시공(서비스창업) ▲충주상고 반려동물용품, 공예작품, 전자상거래구축 ▲한림디자인과 칠보공예품, 수제 네일팁, 험파션 ▲송덕학교(특수학교) 아띠 커피숍 운영 등이 한 공간에서 짜임새 있게 이뤄질 예

/박철우 기자

보은 세종초, 세종 느티나무 축제 개최

세종초등학교는 28일 2021년 한 해 동안 학교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재능을 세종 느티나무 축제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진행된 이번 축제는 학교 내 작은 무대를 마련하여 전교생과 교직원의 응원 속에서 내 꿈과 끼를 펼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번 축제는 세종초등학교가 자랑하는 타악